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1.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b>자</b>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b>파</b>
광주 062.524.3511	<b>바</b>	<b>아</b>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b>차</b>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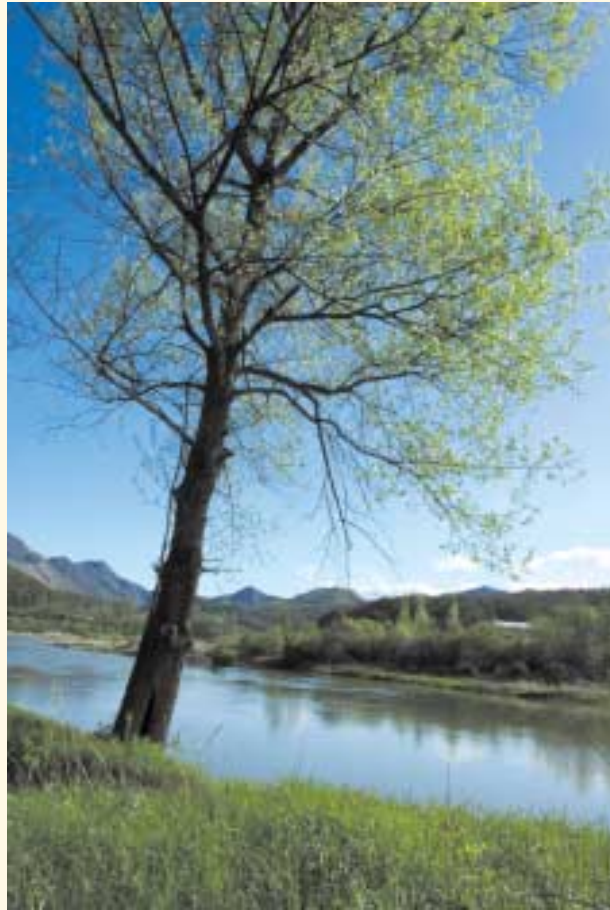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젊은이여, Y를 토대로 발돋움하라!

**이달의 현장 ①**  
 길 위의 평화학교 : 한국Y·퀸즈Y·연변 여성들이 함께하는 백두산 평화기행

**이달의 현장 ②**  
 제15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오늘의 여성**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함께 꾸는 '나비의 꿈'



나는 하나님의 생명수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한 그루 나무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수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시냇가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언제나 싱그럽고 기쁨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글 / 최병성(목사, 환경생태운동가)

## 목차



### 표지이야기

강 하나 건너 지척에 북한 땅, 북한 사람들 대하여 통일의 길을 가슴에 새깁니다. 평화기행의 길을 걸으며 평화 통일과 평화 순례자의 삶을 소망합니다.

- 04 이달의 생각 \_ 젊은이여, Y를 토대로 받들옵하라! | 김은경
- 05 이달의 인물 \_ 한평생 고아와 소외된 여성을 돌보다 양한나 선생 | 하선규
- 06 이달의 현장 ❶ \_ 길 위의 평화학교 : 한국Y · 퀴즈Y · 연변 여성들이 함께하는 백두산 평화기행 | 최수선나 외
- 10 이달의 현장 ❷ \_ 제15차 한 · 일YWCA 청소년협의회 | 홍다운 외
- 12 성명서 \_ 제15차 한 · 일YWCA 청소년협의회 '탈핵과 에너지 정의'를 위한 공동 성명서
- 13 오늘의 여성 \_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함께 꾸는 '나비의 꿈' | 윤미향
- 15 성명서 \_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죄하라!
- 16 생명 씨앗 \_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비상
- 18 생명 이야기 \_ 느리게, 쉬어가며, 행복하게 | 이윤숙
- 20 평화의 여정 \_ '길 위의 평화학교'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다 | 최장현
- 22 감동이 있는 나눔 \_ 저금통 들고 찾아온 효은 · 건호 남매 이야기
- 24 돌봄협동조합 \_ 한국기독교와 협동조합운동 | 한경호
- 26 YWCA와 사회 \_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해 | 국민일보 7+8월 기사 모음
- 28 카다리 \_ Y-틴 지역별 회원대회
- 30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_ WCC 에큐메니칼 운동과 여성 | 배현주
- 32 연합회 소식
- 34 회원YWCA 소식
- 43 문화가 산책 \_ 함께 읽고 싶은 책

# 젊은이여, Y를 토대로 발돋움하라!

글 | 김은경 (연합회 실행위원, 아카데미팀장, 세종리더십개발원장)




탈핵과 에너지정의의 주제로 한 · 일Y 청소년협의회가 열렸다. 15명의 일본청소년들이 지도자 세 분과 함께 바다를 건너 서울을 찾았다.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어울려 앉아 '정의로운 에너지'에 얽힌 전문가의 조언과 갈등의 현장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전해 듣고 있다. 무엇이 계기가 되어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지 자세한 속사정은 알지 못하나, 2013년 뜨거운 여름에 이어진 4월 동안의 여정은 분명 그들의 삶에 기억될 '거룩한 부담'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어색함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매력적인 시간이기도 했지만, 핵 발전에 따른 인류적 재난과 전쟁과 무지가 불러온 과거에 대한 무거운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현 세대가 안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그들에게 떠넘긴 자리였기 때문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이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다.

Y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각자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나누어주는 곳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짊어질 십자가와 함께 이를 감당할 능력까지도 함께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하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만나게 한다. 즉,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곳, 즉, '책임 責任'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곳이다. Y가 훈련의 장 場인 만큼 와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 자체로 Y의 비전은 현실이 되는 토대를 갖게 된다. 한 · 일Y 청소년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100년의 Y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됐다. 전례 없는 무더위와 장마에 내손을 떠나지 않았던 전국대회 부채에 쓰여진 비전선언문 청.춘.여.찬. 그중에서도 청!...

“청!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도전하고 변화하는 (로마서 12:2) 젊은 YWCA와 사회가 되도록, 무한 경쟁의 교육체제를 존중과 협력의 교육체제로 바꾸고, 지역 사회와 세계에서 봉사하는 청소년리더십개발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한국YWCA가 학교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Y-턴 활동과 키다리학교 운동을 넘어 무너지는 학교로 인해 고통 받는 청소년들의 신음소리에 대한 응답이 되고자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을 시작했다. Y의 비전을 실현할 사람이 곧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믿음 하에, 공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는 물론, Y정신과 정체성 회복을 통한 Y운동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Y운동 역량 확보라는 대내외적 기대효과를 짊어지고 짊어지지 않는 항해를 시작했다.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함께 모여 토론하고 방법을 찾는 학습, 그리고 실행...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52개 회원Y 어딘가에서는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다. 책임지겠다며 떠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임무 완수를 위해 기꺼이 쉽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 한평생 고아와 소외된 여성을 돌보다 부산YWCA 창설자 양한나 선생

글 | 하선규 (부산YWCA 회장)



고아와 여성 장애인들에게 재봉 작업을 통해 병을 낫게한 양한나 선생

1893년 3월 3일 동래 복천동에서 태어난 양한나 선생은 일신여학교 고등과 제1회 졸업생으로 1923년 현재 부산Y의 전신인 일신여학교 청년회의 총무로서 여자기독교청년회 활동에 참여했다.

##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에 투신

의신학교의 교원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양한나 선생은 1915년 의신학교에서 일본왕 대정의 즉위식 기념 떡을 학생들에게 먹이려 하자 분개하였고 여기에 학생들이 동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더 이상 교단에 머무르기가 어려워 1917년경 일본의 요코하마 여자 신학교로 떠났다. 재학 중에 독립운동에 참가했는데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났고 그가 그녀의 호적명을 양한나(韓拏)로 개명해 주었다. '양한나의 나(拿)는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내 나라를 길이 보존하도록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이라고 한다.


국내에 들어와서는 부산여자청년회 활동을 하며 1921년 야학을 3개 반으로 나누어 지도했다. 또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여 자기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이화여자전문 유치사범과를 졸업하고 정동 이화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활동하다 1926년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귀국 후 1929년 부산 초량교회 유년주일학교 교사로서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양한나 선생은 미군정기에 들어서 수도청장 장택상의 권유로 1946년(1945년) 초대 수도여자경찰서장에 취임했다. 공창폐지운동에 주력하며 여성들의 살 길을 크게 염려하였고 이것이 자매여숙을 설립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1946년 7월 1일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부산YWCA) 창립 시 총무도 없이 초대회장이 되었다. 창립 시 회원 20여 명으로 동대신동의 셋집에서 시작했다. 그 후 1947년에

아미동으로 이사하고 2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발전하였으며, 1947년 세계Y협의회에 김활란, 김신실, 황대억, 최이권, 최예순, 김정옥, 김자경, 박마리아와 함께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초창기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의 활동을 보면 계몽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였고 1948년부터 농촌부녀자들에게 농업, 축산, 원예 등의 기술을 교육했다. 그 후 1948년 7월 회장직을 안음전에게 물려주고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를 떠났다.

## 자매여숙의 설립과 운영

양한나 선생은 1976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에만 전념했다. 1946년 아미동에서 유아 55명으로 고아원을 시작하였고 6·25 이후 부산의 전쟁 고아들과 생계형 윤락 여성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자매여숙을 시작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여성 정신병자들을 접하고 1953년부터 정신병자 보호사업을 시작했다. 20년 동안 꾸준한 인간애로 그들과 같이 생활해 오면서 200여 명을 완치시켰다고 한다. 원생들을 입히고 먹고 교육시키는 데 하루를 모두 보낸 양한나는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었고 가재도구 없는 작은 방에서 거주하며 항상 검소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양한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1976년 6월 26일에 작고하기까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으나 그의 업적이 컸기에 장한어머니상, 용신봉사상,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양한나 선생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된 여성들에게 혼신의 힘을 쏟았다. 

# 평화의 집에 도달할 그날까지

글 | 최수산나 (연합회 평화나눔팀 부장)



한국YWCA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연변과 백두산 등지에서 '한국Y·퀸즈Y·연변 여성들이 함께하는 백두산 평화기행'을 가졌다. 한국에서 출발한 인원은 총 37명으로 23명의 한국YWCA 지역별 대표와 13명의 연합회, 국민일보 기자 1인이 동행하였으며, 현지에서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15명, 연대과학기술대학교 관련 인사 14명, 뉴욕퀸즈Y 2명이 합류하였다. 평화 기행에 앞서 참가자들은 8·15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와 특강 및 지역별 모임을 통해 평화 통일을 위한 영(靈)·지(知)·정(情)의 마음을 나누고 평화의 순례자로서 결의를 다졌다. 이를 통해, 본 기행에서는 YWCA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의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 제3차 여성이 만드는 평화와 미래

이미 90년대에 한국Y는 연변, 뉴욕 등 다양한 지역의 우리 민족 여성들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한민족여성대회를 열고, 각 국가별 여성평화운동의 현황을 공유하며 추후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94년 연변, 96년 뉴욕에서 열린 모임에 이어 17년 만에 다시 연변에서 열리는 3차 모임은 당시 참가하였던 1,2차 참가자들의 결의와 감동을 이어 간다는 의미와 함께, 그간의 운동 결과를 서로 나누고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 심포지엄의 기조 발제를 맡은 강교자 이사(연합회 중경회장)는 분단의 아픈 현실 속에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이라는 단어 사용이 오해와 위협을 받기까지 했던 80년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Y의 평화통일운동은 한국교회의 신학적 흐름과 깊게 연관되었으며, 86년

YWCA 평화 통일을 위한 정오기도로 평화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활발히 전개된 Y 평화교육 운동을 비롯하여, '북한 어린이에게 어머니의 마음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개된 분유보내기 운동 중심의 평화나눔운동, 97년 이후 증가된 탈북민을 위한 평화돌봄운동, 국제연대와 북한Y 재건 준비 등 한국Y 운동의 성과와 과정들을 돌아보며, 이후 과제에 대한 도전을 던져주었다.

이어 1,2차 참가자였던 박해나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이사, 운명선 연합회 평화나눔팀 위원, 홍인숙 뉴욕퀸즈Y 고문총무가 1,2차 모임의 경험과 각 국가별 운동의 결과들, 그리고 3차 이후에 대한 기대들을 나누었다. 특별히 홍인숙 총무는 미국과 전화통화가 불가능했던 나라가 북한과 큐바뿐임을 알고 뉴욕퀸즈Y가 미국과 북한 간 전화선 개설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95년 봄에 전화가 개통되었던 일, 또한 통일만두빚기, 자선음악회 등 북한 어린이돕기운동을 전개하고 평양방문을 진행하였던 일등을 소개하며, 이후 4차 모임은 평양과 기대와 연계하여 평양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모듬별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했던 평화 vs 생각하는 평화', '함께 이루어갈 평화의 길을 위한 실천방안 Peace Action' 등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날 밤에 '액션 플랜 10'으로 제안되었다. 그 내용은 한민족여성대회의 정례회, 국내 거주 탈북민과 연변 조선족의 역할 제고 및 지원, 통일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Y 평화교육 인프라 구축과 확산 활동, 평화 및 다문화 감수

성 향상 교육, 북한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등이다.

## 길 위의 평화학교

여정의 동행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평화의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길 위의 평화학교'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하루를 열고 닫는 시간과 버스에서의 긴 이동시간은 차시별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연합회 평화나눔팀의 운명선, 배영자 위원이 교사 역할을 맡았다.

연길 공항에서 내려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한 일행은 '만남'이라는 노래로 1교시를 열었다. 2교시는 연길에서 백두산 근처의 마을인 이도백하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주제로, 연길에서 도문으로 이동하는 3교시에서는 '인간 관계'에 관한 주제로, 4교시에서는 '피조물들과의 관계'로, 버스 안의 짝꿍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종교적 단어 사용과 의식 이행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순서의 기도와 찬양은 평화의 글과 생각의 나눔, 의미에 부합한 가요와 개사된 노래들로 대신하였기에, 이러한 주제들도 굳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민감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흔들리는 차 안이었지만 참가자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감동을 주고받기에 충분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 평화와 사랑의 나눔

개회식과 함께 진행된 환영의 밤은 각 지역별로 준비한

여성·평화·통일 개사곡과 율동 및 무대복으로 흥이 있는 만남과 소개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팀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동동타령을 불렀는데, '내 가슴에 기쁨이 동동 뜨네'라는 노래 가락과 멋드러진 춤사위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처음 만난 어색함도 잊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를 부르며 전원이 하나의 원으로 7가지 색깔의 띠를 엮는 평화와 사랑의 띠잇기를 하였으며, 두만강 접경 지역의 한 카페에서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은 평화', '만남', '우리는 사랑의 띠로' 등의 노래를 손맞잡고 부르며 감격의 포옹을 하였다.

폐회식은 각 모듬별로 나누어 준비한 순서들마다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었으며 마지막에 찬식과 '만남' 노래까지 하나 되는 마음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깊어지는 평화의 염원 속에서 시작된 이 평화기행은 평화 감수성 향상 및 통일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평화통일 운동의 교두보로서의 연변 지역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돕고, 평화통일 운동에 대한 YWCA의 사명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사랑의 나눔과 하나됨의 목소리를 경험하는 평화의 순례길이었다. 이 첫 순례자들의 감동과 열정이 각 지역에서 평화통일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평화의 순례길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들이 한국YWCA를 통하여 이 땅에 가득해 지기를 기도한다. 





백두산 천지

### 다녀와서

**한숙란**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이사)

이번 백두산 기행에 함께하면서 한국Y가 평화통일을 위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각 지역의 평화의 일꾼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진실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한국Y와 함께 우리 연변민들레문화협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도문으로 가는 길에 Y 선배들의 말씀과 행동에서 흠어져 사는 우리민족, 아직도 굶주림과 고난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형제자매들을 가슴아파하며 빨리 구하고자 하는 진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Y 여러분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사랑을 주고 나눔으로써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들레협회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을 나누고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충성하고 우리 연변민들레협회에서도 한 몫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영희** (전주YWCA 회장)

한국, 연변, 퀸즈Y 회원들이 함께 한 백두산 평화기행은 전체 회원YWCA에 평화운동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 확산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Y가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와 연변과학기술대가 해 오고 있는 통일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크고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퀸즈Y와 한국Y가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평화운동에 대한 기대로 통일에 한발자국 다가선 기분이 듭니다.

**김말숙** (인천YWCA 부회장)

‘길 위의 평화학교’ 백두산 순례길에서 내 나라 내 땅을 거쳐서 가야할 길을 거치른 만주벌판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온 길이, 순간,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천지.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그때, 가슴깊이 치밀어오는 그 무엇에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험빛고 지친 우리의 형제자매를 보



제3차 한민족여성대회



두만강 접경 지역 카페에서



민들레협회에 의약품 전달



평화와 사랑의 나눔

았습니다. 가만히 그들을 불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띠로 연결되는 너와 나, 우리가 함께 하는 합창입니다. 아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자 벽차오르는 기쁨, 자꾸자꾸 주먹에 힘이 가고 가슴에는 평화의 염원이, 통일의 희망이 솟아납니다. 이제, 우리의 형제자매와 같이 걷고 싶습니다. 그 길, 멀고 험해도 서로 부둥켜안고 평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정은경** (청주YWCA 사무총장)

백두산 평화기행을 통해 함께했던 선배, 동료들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민들레협회 회원들이 동행하면서 따뜻한 자매애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서로 국적과 사는 곳은 다르지만 한민족으로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은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연변, 북한이탈주민과 더 많은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한민족여성대회를 평양에 유치하고, 민간여성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무너진 북한YWCA 재건의 그날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현슬** (광주YWCA 대학생 회원)

연길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여기가 다른 나라가 맞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한국어 간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연변, 퀸즈 선생님들도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낯설지 않고 친근했는데, 우리가 함께 평화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평화기행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래 전부터 평화의 만남을 가져왔던 것이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나도 앞으로 이렇게 평화의 만남을 갖고 평화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기행을 통해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유은경** (인천YWCA 대학생 회원)

연길에 도착했을 때 반가운 이웃동네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연변에서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광활한 백두산의 천지를 바라보며, 두만강 건너의 한민족의 삶을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었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현실 속에서 평화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동안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그리니 자연스럽게 일정 동안 사랑이 넘치며 우리 안에서부터 평화가 그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길에서 우리는 평화에 대해 고민하였지만 Y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제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보여도, 다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평화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배영자** (연합회 평화나눔팀 위원)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장엄함과 장백산 폭포, 두만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본 북한의 전경을 통해 지나온 시간동안 통일과 평화를 염원해 온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였습니다. 이 감동은 ‘길 위의 평화학교’의 개최 의의와 기대를 능가하였고, 참석자 모두 평화통일 사명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하나 된 민족이 한라부터 백두까지, 연평도에서 독도까지 마음껏 노래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이 평화학교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민들레협회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마다 마음껏 울고 웃으며 지낸 이번 기행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 핵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함께 손잡다

글 | **홍다은** (서울Y, 이대 기독교학과 2학년)



제15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탈핵과 에너지 정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한국Y 18명, 일본Y 18명이 참가하였다.



제15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를 위해 한국 참가자들은 하루 먼저 모여서 일본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첫째 날은 하승수 변호사와 김준한 신부께서 강연을 하였다.

하승수 변호사님은 강연을 통해 세계 제일의 원전 밀집 지역인 동북아에 위치한 한·중·일은 결국 '운명공동체'임 강조하였다. 저녁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에 함께 하고 계신 김준한 신부님의 강연이 이어졌다. 결국 밀양 문제도 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밀양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고 전기를 쓰는 이상 우리는 밀양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

둘째 날은 현장탐방 날이었다. 서대문형무소, 에너지드림센터, 팀별로 인사동, 명동, 동대문 중 한 곳을 방문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배워온 것과 다르다며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에너지드림센터는 한국 최초의 에너지제로하우스로, 건물 설계부터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고 태양광 및 지열에너지를 자체 생산한다.

셋째 날은 국가보고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핵무기와 원전은 결국 같은 것인데 이를 다른 것이라 주장하는 정부에 농락당해서는 안 되며,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 등을 나눴다. 저녁 문화교류 시간에 한국에서는 공연과 율놀이, 제기차기를 준비했고 일본에서는 일본 전통놀이와 유카타 체험을 준비해왔다.

마지막 날에는 전날 협의회를 토대로 작성한 한·일 공동 성명서를 수정하고 발표함으로써 3박 4일간의 협의회를 마무리했다.

원자력에 대해서도, 밀양에 대해서도, 한·일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았다. 이번 협의회는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나아가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었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 준 시간이었다. 이번 협의회의 상징이었던 바람개비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탈핵과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청소년협의회 참가자 소감

#### 노다 하루카, 칸노 미쿠, 사사사키 레이나 (일본Y 참가자)

후쿠시마 지방의 피해인데 이번 협의회에 참가하여 원전 사고 피해 상황을 일본지역 청년들과 한국의 청년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청소년들이 탈핵을 위해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다.

#### 카토 마이 (고베Y 회원)

후쿠시마 근처의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탈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참가했다. 협의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

웠으며 한·일 양국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의 밀양 송전탑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면 좋겠다.

#### 이정민 (서울Y, 이대 국제학부 1학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핵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고 이후 2년이 흐른 지금,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원전 확대의지를 밝혔고 핵 없는 사회의 필요성은 양국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는 양국의 청소년들이 탈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역사를 뒤로하며 현시대의 문제를 협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동북아시아는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탈핵은 협력 없이 이룰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 이승혁 (인천Y, 경기대 경영학과 2학년)

양국 참가자들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탈핵에 관한 많은 정보와 인식을 공유했으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통해 탈핵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입장을 사회에 알릴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든 것 같아 기쁨을 느꼈다. 수많은 토론을 끝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이 핵문제에 있어서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였다.

이 성명서는 탈핵 관련 문제를 양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양국 참가자들은 이후 '탈핵과 에너지 정의' 공동 성명서와 협의회에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각자의 국가에서 탈핵관련 사후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한·일Y 협의회는 탈핵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였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해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외교 문제를 겪고 있는 양국에 평화의 교두보를 만드는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탈핵 액션플랜 설명



현장탐방 서대문 형무소 앞

일본 참가자들에게 협의회 일정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꼽으라면 다수가 밀양사태에 관해 알게 된 것을 꼽는다. 밀양사태를 보면서 일본인 참가자들도 일본 내 에너지 부정의 사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협의회에서 탈핵에 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안해 내기 전에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아이디어만 나올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단순히 '전기를 아끼자'가 아닌 '개인 태양광전지를 보급하여 전기 자체생산을 일반화하자'라는 실천 가능한 해결방안을 고안해냈다. 공동 성명서가 YWCA를 통해 많이 알려지고 읽히지면서 정부, 시민 그리고 우리 청소년이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YWCA

## 제15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탈핵과 에너지 정의’를 위한 공동 성명서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는 매년 양국가 청소년들이 동북아시아의 현실을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양국가 청년들은, 양국의 핵발전소 안전신화와 핵발전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우리들은 이번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를 통해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의 주민들과 후쿠시마 주민들의 증언을 듣기 전까지, 우리가 그동안 무턱대고 써왔던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후쿠시마와 밀양 송전탑 건설에 저항하여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핵발전의 엄청난 위험과, 핵발전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부정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구조 속에서 안락하게 사는 삶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며 우리도 언젠가는 또 하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후쿠시마와 밀양은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 곧 밀양이 우리이고, 후쿠시마가 우리인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이후 발생한 엄청난 방사능과 몇 십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핵발전소 폐기물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아픈 마음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핵연료가 결국에는 가공할만한 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핵발전소는 결코 동북아시아 평화와도 양립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동북아시아는 세계제일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고 어느 한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동북아시아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사는 우리는 같은 배를 탄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위험한 핵에서 벗어나고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안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진정한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가 알게 된 핵의 위험성과 부정의함을 청년 친구들과 시민들에게 SNS를 비롯한 인터넷 등 유용한 홍보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 **하나.**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보다는 타인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낭비적인 생활 습관을 고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다.
- **하나.**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희생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위험한 유산을 남기는 핵 발전을 반대하며,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기초한 이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 **하나.** 세계제일의 핵 밀집 지역인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은 운명공동체이다. 핵없는 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 한·일양국의 청년들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3년 8월 26일(월)  
제15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참가자 일동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함께 꾸는 ‘나비의 꿈’



글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남들은 다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이대로 죽는 것이 너무 원통하다며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감는 피해자들도 만난다. 이들 여성들의 해방받지 못한 삶은 한국이 일제식민지로부터 광복을 받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고통의 시작은 1930년대 초부터였지만 당연히 그 피해는 1945년 이 여성들을 참혹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그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진실이 날날이 밝혀지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법적 배상을 통해 인권회복이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피해자들에게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는 진실조차, 사실조차 실종시킨 채 50여년의 세월을 피해자들에게 고통스런 삶을 부여했다.

### 국가 주도 집행관리, 은폐

그렇게 반세기가 지나고 난 후 피해국 한국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터져나오고, 여기저기서 여성의 권리회복을 위한 활동들이 시작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성운동의 활동에 피해자들의 증언과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내외로 확산되어 갔으며, 일본에서의 양심 있는 학자들의 문서발굴활동, 여성, 시민활동 등은 일본 국내 여론을 조금씩 형성해 나갔다. 그로 인해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 범죄는 민간에

의한 우발적 전시 강간범죄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여 기획하고 집행하고 관리, 은폐한 범죄라는 것이다.

일본군은 1931년 중일전쟁 때부터 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15년 동안 일본군인들이 아시아의 여성들을 국가의 합법적인 보장아래 강간할 수 있도록 강간캠프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동원하여 여성들을 강간캠프에 조달시키고, 관리하는 등 전시강간을 국가의 정책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며 제도화했다. 그것이 바로 일본군이 자행한 ‘위안부’ 제도, 일본군성노예 범죄였다.

그 전쟁이 끝나고 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정부 및 고위관료들에 의해 “강제가 아니었다. 극한의 전쟁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였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게 일본의 성 매매 시설을 더 이용하라” 등의 망언들이 계속되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사죄를 했으며, 아시아여성국민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대다수의 아시아피해자들이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며, 전쟁이 끝나고 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정부를 향해 사죄하라, 배상하라,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해서 재발방지교육을 하라고 요구하며 힘겹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 공식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요원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단단한 벽이다. 일본정부는 유엔의 권고도, 국제사회의 요구도 듣지 않고 있으면서 “유엔의 권고는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렇게 정의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들의 사망률은 높아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제 58명의 피해자만 생존해 있다. 다른 아시아피해지역의 피해자들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 인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소박한 소망이 의미가 없어지려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것도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의 법적인 책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 1991년 8월 14일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아시아 정부간의 연대, 시민들의 연대, 피해자들의 연대, 나아가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더 강한 국제여론을 모아 압박해야 한다. 유엔과 당시 연합군이었던 나라들에게도 68년 전,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피해사실과 일본정부의 가해사실을 조사,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불처벌의 책임을 이제라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늦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활동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세계의 전쟁과 성폭력을 조장하는 정치, 군사적인 시스템, 문화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전쟁터에서 겪었던 경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짓을 기억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만으로도 불편해 할 것이다. 201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해 대만에서 열렸던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들은 1991년 8월 14일,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가 공개적으로 증언하며 자신이 살아있는 증인임을 밝히며, 일본정부의 범죄를 고발했던 날을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8월 14일, 세계 각지에서 일본정부에게 문

제해결을 촉구하며 첫 번째 기림일로 진행했다. 이것을 더욱 확산시켜 유엔의 날로 정하여 공식화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3년동안 진행되어 왔던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들의 적극적 기억행동을 국제사회의 기억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행동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로 전시성폭력 범죄 재발방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그 일을 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서 일본군 ‘위안부’ 들과 미군기지촌여성들이 함께 손을 잡았고, 일본군 ‘위안부’ 들과 콩고 여성들, 베트남 여성들이 함께 손을 잡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해결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운동의 주체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연대운동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 활동으로 이어져 콩고의 피해자들과 베트남전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지원과 연대활동을 통해 전쟁을 평화로 바꾸고,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나비의 꿈을 펼치고 있다.

#### 전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권회복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갯짓 하기를 염원하는 나비가 세계 곳곳에서 날고 있다. 세계 곳곳에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교육하기 위한 평화비가 세워지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시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연대하기 위한 ‘나비’ 연대체 결성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바라는 ‘평화세상을 향한 나비의 꿈’ 이 한국에서 날기 시작하여 아시아로,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날아가 세계의 전쟁지도가 ‘나비지도’ 로 바뀌길 희망해 본다. 그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에덴동산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전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권회복을! 이 땅에는 평화를!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들에게 사죄하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한일 양국 YWCA 공동성명서〉

한국YWCA와 일본YWCA는 최근 연이은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관련 망언들을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및 관계자 처벌을 촉구한다.

“전쟁 중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시장의 발언은 역사적 몰인식과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 회피에 기인한다. 군대 내 성노예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의 존재와 강제적 여성 착취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이다. 이는 몇몇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우익 집단의 조직적이고 뿌리 깊은 음모이며 시도이다.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관방장관 담화의 수정과 평화헌법 제9조를 개악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노예 동원은 성노예 성폭력이나 전쟁 범죄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대대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자행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삶을 그동안 철저히 외면해왔다. 일본 정부는 무력분쟁 시 여성의 보호와 평화·안보의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문 1325호’ 를 이미 2000년에 채택했다. 이제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과 각국 의회, 세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YWCA와 일본YWCA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의 성노예 사실을 공식 사죄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 공개와 철저한 사실 조사를 이행함과 동시에, 올바르게 정확한 역사 인식을 위한 시민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양국가 YWCA는 아시아 지역의 YWCA를 비롯한 세계YWCA와 협력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는 교육에 힘쓰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6월  
한국YWCA · 일본YWCA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비상

한국YWCA '생명운동의 해'인 2013년, YWCA연합회와 회원YWCA는 '탈핵 실천 에너지 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7월 23일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한 가운데 연합회와 회원YWCA는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인 만큼 시민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동부지역 YWCA

### 식품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방사능 안전 허용 기준치

####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정부정책제안 기자회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Y는 탈핵과 고리 1호기 폐쇄운동을 전개해오던 중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국내외 식품의 방사능 오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에 2012년에는 '수입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찾기'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과 정부에 알리는 데 노력했다. 2013년 올해 들어서는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유통관리와 방사능기준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에 대해 관리강화를 요구하고자 동부지역YWCA가 함께 정부정책제안을 준비했다. 또한 이 제안에 대해 한국에 있는 52개 회원YWCA가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지난 7월 말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고농도 방사능 수증기와 오염수가 방출되었고 다시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놀람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동시에 국내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했고, 이에 동부지역YWCA(거제, 경주, 김해, 대구, 마산, 부산, 사천, 안동, 양산, 울산, 진주, 진해, 창원, 통영, 포항)는 8월 7일 오후 3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회장, 사무총장, 실무자 등 40여명이 모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에 '식품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기준치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정부정책제

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대표단 8명은 부산지방 식약청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정책제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제를 실시할 것.

**둘째,** 식품 방사능 기준치를 IPPNW(핵전쟁방지를 위한 의사회)가 제시한 수준 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수준으로 하향 조절 할 것.

방사능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고 또한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률이 80-95%정도 되며, 방사능 음식을 누가 먹는냐에 따라 위험성(태아>어린이>여성>남성 순)은 달라진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식품 방사능에 대해 각 국가마다 관리기준치를 마련해두었지만 이 기준치는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국가마다 달라 안전기준치라고 보기 어렵다. 즉, 방사능은 제로(0 Bq/Kg)일 때만 안전하며 피폭량과 암발생률은 비례한다는 것이 세계의학계의 공식입장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더 이상 정부는 일본산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전 세계 해양의 수산물에 대해 관리기준치 이하라고 안전하다며 국민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안심시켜서는 안 되며 유해한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어떤 식품에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함유되었는지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조건하에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식품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방사능 안전 허용 기준치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캠페인 (부산 식약청 앞)

수 있고,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위와 같은 입장과 정책 제안을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였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동부지역YWCA는 이 제안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동할 것이며 9월 한 달 간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52개 전국YWCA 운동으로 확산·진행할 것이기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앞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야 할 것이다.

(오진아 부산Y 팀장)

## 한국YWCA연합회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8월 1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었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오염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방사능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지난 2011년 4월 4일 방사능 오염수 1만톤 이상을 무단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를 일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캠페인 (일본 대사관 앞)

켜왔다. 지난 7월 23일 도쿄전력은 지하수를 통해 12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것을 인정하였다. 문제는 현재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로 흘러든 유출 경로를 확인할 수도 없고,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었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라는 것이다. 일본은 주변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 분출과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해놓고서도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일본산 수산물을 먹고 있는 우리나라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상태를 방치하는 가운데 그동안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일본 근해에서 방사능 덩어리 물고기들이 잡혔다. 플루토늄에 오염된 생선이 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세계 석학과 유수 언론들의 경고가 끊이지 않고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그대로 통관 및 유통시켰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리 : 편집실)

# 느리게, 쉬어가며, 행복하게

글 | 이윤숙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바쁜 오늘이니까  
오히려 나는 천천히 걷는다  
가을 햇살이 내려오는 소리를  
들 수 있도록

- 아마오 산세이

## 빠름과 바쁨에 내던져진 삶

외국에 살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 달 정도 오래 머물 예정이니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회포를 풀자고. 항상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던 친구였는데, 결국 몇몇 친구들의 바쁜 스케줄 탓에 만날 약속을 끝내 잡지도 못하고 겨우 만나자고 연락을 했을 땐 이미 한국을 뜬 뒤였다.

“너희들 정말 바쁘구나”라 하며 섭섭해 하던 친구의 말이 계속 내 귓전을 울리다가 난 결국 아프게 깨달았다. 나도 어김없이 이 엄청난 속도사회, 바쁨을 찬양하는 사회 속에 온통 떠밀려 다니고 있구나 하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열심이고자 하면서 나는 대체 무얼 하고 있던 걸까. 매일 기나긴 회의를 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바다에 범람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셀 수 없이 쏟아지는 이메일을 체크하고 어딘가에 연락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다. 이렇게 매일 전화와 컴퓨터, ‘빠름, 빠름, 빠름~’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낮에 있던 일을 생각하거나 미처 다 못 끝낸 문서를 작성하고 또 인터넷을 뒤지고 페이스북을 보고 메일을 체크하다 늦은 시간에야 잠이 든다.

‘아! 이려고 사느라고 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정겨운 친구와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웃지도 못하게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나는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무엇이 우리로부터 옛친구와 삶을 이야기하고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빼앗아 갔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저녁놀을 바라볼 여유도, 별과 달을 볼 수 있는 어둠도 내 것으로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우리는 왜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야 하는가?

## 느림과 기억, 속도와 망각 사이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열차, 초고속 LTE 등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가만 보면 이런 엄청난 속도에 기반하고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금새 메일이 오가고, 저 멀리 부산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서 불일 금방 보고 다시 집에 갈 수 있다. 젊은이들은 같이 있으나 혼자 있으나 언제나 한 손에 초고속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이런 초고속의 편리한 것들 속에 둘러싸인 우리들은 이것들이 우리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하고 단축해주었으니 우리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

고속 물건들이 개발되면 될수록 우리 삶은 더 고단하고 팍팍해졌다. 거꾸로 우리들은 절약된 시간을 즐기기도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더 빨리, 더 바쁘게 뛰어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

언젠가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래도 난 손편지가 좋아, 썼다가 지우고 또 다시 쓰고,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그 사람이 그걸 잘 받았을까, 읽고서 어땠을까 하면서 상상하는 게 참 설레고 행복했어”라고.

생각해보니 그렇다. 간편한 이메일에 익숙해진 우리는 그 속도와 간편함에 맞게 우리의 생각과 느낌, 상상력도 쉽고 가벼워졌다. 이에 비해 펜과 타이프라이터로 종이에 쓴 편지에는 글을 쓴 사람의 망설임과 설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깊은 성찰과 풍부한 상상력이 있다. 지금 이 시간의 것들을 온전히 느끼고 생각해보는 절대적 시간의 여유가 편지를 쓰는 그 시간 속에 풍요롭게 존재했던 것이다. 시몬느 보봐르나 한나 아렌트 같은 이전의 지식인들이 편지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서한집들은 한 시대의 정신이 되기도 하였다.

초고속 열차도 이와 마찬가지로 총회나 포럼 등 연합회 행사에 자주 오셨던 한 어느 지역YWCA 선생님이 “KTX가 없었을 땐 언제나 지인들 집에 묵거나 하면서 사람도 사귀고 서울 구경도 하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열차시간에 맞춰 서둘러 돌아가기 바쁘다”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 초고속의 생활환경을 추구하면서 간편함과 효율성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들은 많을 것을 또 잃어가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우정과 환대와 같은 깊은 사귄다 나눔,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시간, 들뜬 풀과 새들, 바람을 느끼면서 자연과 사귀는 일 등 우리 삶의 근본을 이루는 것들을 점점 경쟁과 효율의 가치로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그의 소설 속엔 『느림』에서 ‘느림과 기억 사이, 빠름과 망각 사이에는 어떤 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나온다. 과연 우리는 빠름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 걸까? 속도를 추구하는 사이,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느끼며 돌보아야 한다는 것, 우리 삶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음성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다. 그뿐인가, 속도와 효율, 성과가 최고가치가 되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다 보니 어렵게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위협당해도, 시리아의 어린이가 사린독가스에 울부짖어도, 초고압 송전탑을 위해 한 마을의 삶과 자연이 파괴당하여도 그 본질과 심각성을 생각하고 행동할 여유가 없다.

## 느린 것이 아름답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제대로 느끼고 생각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도 그것을 먹을 때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도 시간이 걸린다. 저녁노을을 볼 때도 그것이 어둠으로 꺼지는 걸 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어떤 것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많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삶의 뿌리는 깊어지고, 그것과의 관계는 풍요로워진다.

‘빨리빨리’라고 속도에 떠밀리며,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며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이 미친 고속도로 위를 우리는 언제까지 달려가야 할 것인가.

일본의 자연농법 선구자 카와구치 요시카즈는 오랜 농사 경험 속에서 ‘생명이란 근본적으로 목적도 방향도 지향하지 않으며 오로지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곳간 안에 들인 것 없어도 주님이 먹이시네. 길가에 풀과 저 꽃을 보라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주께서 길러주시니 염려할 것 없으라”라 한 마태복음의 구절은 피로사회와 속도사회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속에 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근심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실히 가르쳐 준다.

우리 삶을 분주하고 피곤해 지치게 만드는 이 속도중심의 삶에 거리를 두고, 느리게 살고 깊은 숨을 쉬며 느끼면서 사는 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온전히 사는 일일 것이다. 

# ‘길 위의 평화학교’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다

글 | 최장현 (YWCA PR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한국YWCA연합회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청주, 부산에서 60여명의 남, 북 출신의 청소년,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남북간 문화 공유 및 이해, 평화통일을 대비한 소통의 프로젝트 - ‘길 위의 평화학교’ (이하 ‘길평’)를 진행 중이다. ‘길평’이 여타 단체들의 통일 준비 프로그램의 추종을 불허할 독창적인 면이 있다면 탈북민과 한국 시민이 멘토-멘티가 아닌 친구로서,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여행과 탐방, 이야기 나눔이라는 소통 형식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출신 청년들이 함께 하는 YWCA PR(Peace Reporter) 기자단을 만들고 신문과 월간지에 소식을 싣고 진행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틀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질적으로 뛰어나지 않는다면 형식과 내용은 서로를 상쇄시켜 없느니만 못한 게 된다. 많은 준비과정과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한 이 ‘길평’이 빛나는 결실을 맺으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획자와 실행자, 참여자 모두가 함께 이 길의 방향과 경유지, 목적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 ‘길평’은 이유를 묻는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관습들, 매너리즘에 빠진 행위들, 열심의 탈을 쓴 통일 운동에 대해 ‘어떻게(HOW)’ 열심히 할까?라는 성과 제고의 질곡에서 빠져나와 먼저

‘왜(WHY)’ 해야 하는가?라는 성찰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니체가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 받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라고 꼬집었지만 지금의 성과주의 시대가 니체 때의 시대보다 더욱 관조와 성찰 없이 행동에만 빠져 있는 때 같다. 김훈 역시 ‘당대의 어떤 가치에도 긍정할 수 없다’고 가치와 진리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고, 헤민스님 역시 자기 책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 역설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과잉열심의 열기에 빠져있다. 우리의 느낌의 미학이 필요할 때이고 성찰을 위한 멈춤이 절실하다.

## ‘길평’은 통일 여행 연습인가?

2013년 2월 한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일이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일간지가 혐의를 판결로 동일시하는 무식함을 드러낸다. (8월 22일 그는 무혐의로 판결받았다) 조선일보(2013. 2. 26. 4:44) 기사에는 ‘탈북자 위장해 간첩행위한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세계일보의 인터넷 기사(2013. 1. 21. 17:41) 역시 ‘탈북자 출신 공무원, 그는 간첩이었다’라는 머리 기사를 한 점 부끄럼없이 실었다. 맺글들은 더 가관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공감보다 공감에 더 많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전체 한국인을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이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서 고통받는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고 배척해야 하는 것인가? 집단 의 동질성을 오염시키는 ‘이물질’로서 차이는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질적인 타자는 계몽되어야 하고 교육받아야 하고 적응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흡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성격이 어떠한든 통일 후에는 남북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희망사항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은 기우일까? 경제력의 유무를 통해 후대와 전대의 경계를 정하고, 금전적 소유를 인간의 가치로 동일시 하는 몇몇 한국인들이 통일 후 잘 배우지도 잘 살지도 못한 북한 사람들을 지금의 이방인들처럼 대하지 않을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 땅은 다수와 소수가 서로 질시하고 반목질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공생공존의 터전이다. 지리적 통일 전에 남한에서는 다수와 소수사이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여행연습’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 다가온 통일은 우리에게 우환으로 다가올 뿐이다. 이 땅의 소수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는 통일은 의미론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길평’은 소수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통일 ‘여행연습’을 할만한 능력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가?

## 서로에 대한 적응인가?

새터민들은 입국전부터 잘 살려면 북한적인 것을 버리거나 증오하고 남한적인 것을 찬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적응이고 정착이라고 학습받는다. 이 세뇌화는 1923년 관동대학살을 피하기 위해 15엔 50전을 발음해 보여야 했던 많은 재일 조선인들이 사건이후 살아남기 위해 완전한 일본화(복장, 이름, 음식, 말투)를 시도했던 때를 상기시킨다. 그들은 육체적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그랬지만 새터민들은 ‘성공’과 적응을 위해 남한화를 시도한다. 사실 적응의 문제는 새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새터민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야말로 그들에게 적응이다.

문화의 충돌이 가장 첨예하게 일어났던 사건은 백씨와 임국회의원과의 설전이다. ‘총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쌍방은 상처를 입었고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인사법은 상대의 얼굴에 침뱉기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고 남한에 왔으면 남한 문화에 어긋나는 실례 될 일은 해서는 안된다. 임씨도 북한식 개그 문화를 알았더라면 덜 공격적이었을 것이다. 적응의 문제는 문화의 수용문제이다.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와 관용의 문제이다. ‘길평’은 이런 적응의 문화적 관용을 위해 노력한다.

## ‘길평’은 여행이고 동행인가?

다만 열심히 가는 여행이 아니다.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베트남과 독일과는 사뭇 다른 길이다. 그들이 얻어낸 통일은 우리에게 참고가 될진 몰라도 우리의 롤모델은 아니다. ‘길평’은 초행길이고, 땀으로 찾아가는 길이고, 피와 눈물로 다져가는 길이다. ‘열심히 걷는다는 것’은 육체의 근면성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유와 육체적 삶의 병진을 뜻하는 것이다. 사유는 활동을 위한 관조이고 활동은 관조의 실천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관조없는 ‘길평’ 활동은 맹목적이고 활동없는 관조는 ‘길평’의 나태이다.

그런 의미에서 ‘길평’은 일방의 주도와 일방의 계도로 이뤄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평등하고 동일한 선상의 수평적 관계로서 한국인들과 새터민들이 함께 가는 길이다. 좋은 점은 나누고 버려야 할 점은 함께 성찰해서 고쳐나가는 왼손으로서 한국인과 오른손으로서 새터민이 함께 손잡고 가는 동행이다.

‘길평’이 이제 길을 떠난다. 떠나기로 결심했고 지금 막 첫 걸음마를 뗐다. 우리의 ‘길평’은 얼마나 걸어내고 얼마나 성장할까?

# 저금통 들고 찾아온 효은·건호 남매 이야기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에 참여한 효은·건호

조효은 양(초5년)은 남동생 건호(초2년)와 북한어린이돕기 저금통을 들고 엄마(박자희 씨)와 함께 8월 9일 연합회 사무실로 찾아왔다. 약 한 달 전 박자희 씨가 명동을 지나가다가 연합회 회관 앞에 '북한어린이돕기' 현수막을 보고 연합회로 전화하여 분유보내기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분유보내기운동 저금통을 요청하여 받은 후 아이들이 저금한 돈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사무실로 직접 방문한 것이다. 편집실에서는 박자희 씨와 인터뷰를 하였다.

**Q 한국YWCA연합회 회관까지 찾아오셔서 YWCA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운동 성금을 전달해주셨는데, YWCA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큰 아이 효은이가 올해 열두 살 소녀가 되었습니다. 5월 효은이의 생일이 다가오면서 의미 있는 생일을 보내고, 뜻 깊은 생일 선물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생일날 놀고 먹고 선물 받는 즐거움보다는 효은이의 생일선물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효은이와 미리 상의를 했습니다. 고맙게도 효은이가 엄마의 의도와 기부가 선한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효은이에게 돌아갈 생일선물을 기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부' 가 나의 삶을 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돌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YWCA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부' 가 형식적이고 강제적인 기억으로 남을까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 와 '나눔' 은 누가 시켜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부저금통을 주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을 모두 넣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큰돈도 서슴없이 넣었는데 건호는 건호한테 맞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회로 끝날 것처럼 굵고 짧은 기부보다 계획적으로 너의 일부를 나누어야한다고 이야기해 주어야했습니다. 그래서 건호 저금통에는 동전이 더 많았습니다.

**Q 나눔을 적극 실천하시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나눔이란 무엇입니까?**

효은이가 어느 정도 크면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부,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형태는 다르지만 이 모든 나눔의 실천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자기마음도 기쁘지만, 일국민 일실천이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어떤 마음으로 YWCA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동참하셨나요?**

기부를 할 수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북한어린이를 기억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에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와 너무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북한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동포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효은이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구요. 또한 북한어린이돕기 성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할 수도 있었지만, 매년 돌아오는 생일에는 아이들 스스로 기부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싶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계기가 선한 일이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임을 효은이가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Q 성금을 전달하시고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진 점은 있었나요?**

연합회에 방문했던 날이 무척 더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부를 방문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큰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시 저금통을 모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으로 건호 이야기를 할게요. 학교에서 크리스마스썰을 팔 때였어요. 건호가 친구랑 대화하는데 친구가 "우리엄마가 썰 사지 말랬어", 건호(큰 목소리로 깜짝 놀라며) "왜? 자기혼자 잘살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는지 '함께' 라는 마음을 익힌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기부며 나눔이 별로 특별한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중의 하나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통 큰 아이들로 자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Q 북한 친구들에게 효은이와 건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원래는 우리가 함께 자라고 놀 수 있는 친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놀랍고, 그리고 아쉬워. 얼른 통일이 되어서 만나보고 싶어. 그때를 준비해서 책에서 북한말도 조금 읽어두었어" 

## 북한어린이돕기 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1.1~8.20 기준(CMS는 8월 20일 기준)

<b>CMS 기부</b> (1월 ~ 8월 20일)	고세영, 곽상준, 곽지영, 김가혜, 김기동, 김명희, 김병호, 김명자, 김은환,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문미란, 문광선(문권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송록희, 심명자,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슬이, 이주영, 이행자, 임강숙, 임진영, 정동신, 조영미, 조영한, 조은선, 조은영, 조은희, 진인식, 최 경, 최수산나,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하은경, 한영수, 황정아, 황홍백, 홍기자
<b>개인기부</b> (월계좌이체기부, 기념기부 등)	고익순, 김누리, 김경희, 김상선, 김행영, 김현자, 김 형, 노영섭, 박용기, 박용욱, 박자희 가족(조건호, 조효은 어린이), 배동숙, 손순근, 심미희, 신은희, 신희운, 안인덕, 안태현, 이경란, 이기천, 정진자, 정희경, 조예성, 조규성, 최한나, 최현자, 최혜실, 한완상 가족
<b>협력교회</b>	궁정교회, 삼청감리교회, 생명빛교회, 성광교회, 서초신동교회, 운임교회 영아부, 정동제일교회, 중구 반석교회, 한신대학교교회 선교부,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선교부, 흥성 행복한감리교회
<b>기관 및 단체</b>	김필레 기념 사업회, 마포구청 신우회, 마포 희망모금봉사단, 청년다솜, 한국씨티은행 명동지점, 해피빈, YWBS인터넷방송국
<b>회원YWCA, 부속시설</b>	광명YWCA 한빛어린이집, 군산YWCA 어린이집, 고양YWCA, 대전YWCA이사 상조회,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서울YWCA 가락복지관어린이집, 세종YWCA, 순천YWCA, 안산YWCA, 여수YWCA 현천중앙교회, 인천YWCA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청주YWCA 어린이집 교사, 청주YWCA 어린이집 어린이, 청주YWCA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파주YWCA, 평택YWCA,
<b>교육 및 모임</b>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실무자모임, 오라포레아(순천 Y-틴), 2013신임회장연수, 1단계 실무자 교육, Y-틴전국협의회, 황주석 6주기 모임

# 한국기독교와 협동조합운동 공극적 목표 하나님 나라

글 | 한 경 호 (횡성영락교회 목사)

협동조합은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공동의 이익을 협동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운동인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두레와 계 등을 통해 협동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운동은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 및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 속에서 당시 사회적 약자들의 자구적(自救的)인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선교의 영역을 넓혀나갔다. 시대별로 요약해서 잠깐 살펴보자.

## 일제강점기 - 자강운동에 역점

일제시대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침탈로 미증유의 고통을 겪은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는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어 반(反)기독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교회는 외세의 극복과 공산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이 시대의 협동조합운동은 '자강' (自強)에 있었다. 점진적인 방법이었고 협동조합은 그에 부응하는 좋은 도구였다. 1925년부터 YMCA가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은 덴마크를 모범으로 삼아 협동을 통해 민중들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하고, 국민고등학교를 본받아 교육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장로교단 내에서는 1928년도에 농촌부를 신설하였는데 총무를 맡은 배민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현재화를 '예수촌운동'으로 보고, '협동조합운동'을 그 실천의 방

법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이승훈과 조만식 등 오산학교의 영향권에서 추진된 협동조합운동은 이승훈의 이상촌 건설과도 맞닿아 있었고, 물산장려운동 등 경제운동의 측면에서 자강(自強)을 통한 힘의 배양과 민족독립의 목적의식을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해방 후 - 1980년 '민중'과 '사회변혁'이 중심 의제

8·15해방 후 백성들의 삶은 참담했다. 남북의 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5·16이후의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는 민초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협동조합운동은 이런 상황에 조응하는 것이어야 했다. 천주교의 가브리엘라 수녀에 의해 1960년 부산 피난지에서 먼저 '성가신용협동조합'이 창립되었고 이후 장대익 신부에 의해 '가톨릭중앙신협'이 서울에서 창립되었다.

또한 부산에서 월남민 의사인 장기려 박사에 의해 1968년에 청십자조합운동이 전개되었다. 청십자조합운동의 취지와 목적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사는 가난한 민초들의 건강을 돌보아줌으로써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자계층이 증가하였고, 이농으로 도시빈민이 양산되었다. 주민교회(이해학 목사)는 당시 빈민촌이었던 성남에서 예수의 삶과 정신을 실천하려고 했다. 주민신협과 주민생협을 조직하여 민중을 각성시키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었다.

오산학교권의 협동조합운동은 월남한 이찬갑에 의해 이어졌다. 충남 홍성 홍동면에 풀무학교를 설립하고 협동

조합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의 지속은 홍동면을 협동적 마을로 변화시켰다. 이찬갑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하늘과 막힌 현대'로 규정하고 하늘과 참된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 현장을 '수난의 중심지'인 농촌으로 생각하였다. YMCA의 협동조합운동은 해방 후 1980년대까지는 활발하지 못했다. 광주 YMCA에 의한 신협운동, 그리고 양곡협동조합을 빼면 소극적이었다. 1960-1980년대가 정치사회적 격변기로서 '민중'과 '사회변혁'이 중심 의제로 등장하여 운동의 계급성과 당파성이 강조되던 때였다.

신용조합운동은 1970년대에 비교적 성과를 보았다. 뜻 있는 목회자들에 의해 또는 교단적인 정책으로 신협 조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활발하였다. 그러나 개인구령과 교회자립이라는 현실적 목표에 치중하여 보다 높은 성경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천주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한살림운동은 시대정신인 생명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한살림선언』등을 통하여 생명운동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 1990년대 이후 - 생명의 시대


1990년대 이후는 생명의 시대이다. 따라서 생명운동을 표방하고,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는 생활협동조합운동으로 주요 흐름이 형성되었다. 기독교권내에서는 교단 차원보다는 개교회나 기독교 단체 그리고 뜻있는 목회자나 평신도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두드러진 현상은 농촌목회자들과 농촌교회의 협동조합운동이다. 1989년 원주 호저교회의 호저생협(현 원주생협의 전신)을 시작으로 봉화 옥방교회의 새누리생협, 완주 율곡교회의 율곡공동체영농조합법인, 아산 송악교회의 송악골영농조합법인, 강화 김정택 목사의 양도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장성 백운교회의 한마음 공동체가 대표적이다.

농업이 생명운동의 토대요 출발이었고, 생명의 문제가 선교적으로도 교인들의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실천과제였기 때문이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만든 경우는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서로살림생협, 감리교농목이 조직한 농도생협, 한국농선회의 농선회생협, 예장 농어촌부의 예

장생협(현재는 해산됨) 등이 있으며, 개인으로는 서울에서 강상빈 권사에 의한 한누리생협, 정기선 집사의 아름다운생협, 전주의 한울생협 등이 도시에서 창립되었다. YMCA는 생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부천, 군포, 안양, 의정부 등 지역YMCA들이 등대생협을 만들었다. YWCA의 경우 협동조합 형태의 운동을 택한 곳은 부산과 청주YWCA 두 곳이다. 그러나 한국YWCA연합회 차원에서 생명협동운동을 주요 실천과제로 채택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다.

## 생명, 정의, 평화의 공동체 구현

한국기독교 협동조합운동은 8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농경사회 속에서 교육과 경제협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자강(自強)을 이루고 나아가 민족독립의 역량을 기르려는 목표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목적의식이 있었다. 8·15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는 6·25전쟁으로 인한 충격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행기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였다. 1990년대 이후는 공업중심의 도시문명이 자리잡고 농촌이 붕괴된 상태 속에서 '생명'의 문제에 조응하여 농촌교회는 생협, 영농조합법인, 공동체운동 등을 통해 경제적 삶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결합하였고, 도시소비자들은 생협운동을 통하여 건강의 문제와 함께 생명 파괴문명의 극복을 염두에 두었다. 이 운동은 한걸음 더 나아가 생명살림과 문명전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공동체로 운동의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표현인 생명, 정의, 평화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수의 말씀과 실천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협동조합운동 역시 그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10차 총회가 올 가을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그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이다.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해

한국YWCA연합회는 매주 목요일 국민일보 32면에 YWCA 운동 정신과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7월에는 '탈핵 실천 에너지 운동', 8월에는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와 정의를' 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실었다. (정리 : 편집실)

## 탈핵 실천 에너지 운동 7월 4일

전세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세 불구  
한국은 되레 급등... 값싼 전기료가 원인  
원자력발전, 안전성 문제로 반대 여론 거세  
국민참여 방식으로 '에너지 민주주의' 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된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제2차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경 국민들 앞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1차 예기본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 비중을 83%(2007년)에서 61%(2030년)로 줄이는 반면 원자력은 14.9%에서 27.8%로 높였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2030년 원전 비중 59%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전력망 문제도 핵심 사안이다. 따라서 전력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도 공간 개념을 도입해 권역별 전력 수급 계획을 짜고, 지자체가 수요 관리와 생산을 통해 지역별 전력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에서 11%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혁명적인 '전환' 이 필요한 시기이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 거꾸로 가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7월 18일

2012년 재생에너지 비중 일 11.2%, 독 21%  
한국은 2030년 목표율이 11% 수준  
왜곡된 전기료 정상화 · FIT제 부활시켜  
태양광 · 풍력 등 민간사업 적극 지원해야

2012년 우리나라 총발전량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의 위기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기업들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대신 내 주는 것과 같은 왜곡된 요금체계가 존재하고,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 주력이 원자력인 것이다. 실제가치보다 크게 저평가되고 왜곡된 전력요금을 제대로 받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비용으로 써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우리는 방사능 위험 없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갈 수 있다. 무엇보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비중을 극적으로 낮추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시민들이 너도나도 자기 농장과 텃밭에, 정원에, 지붕과 옥상에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

## <가 만나는 세상> 안양, 부천, 수원Y 태양광발전

핵발전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연의 빛을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햇빛발전소 사업이 수원Y와 안양Y, 부천Y를 중심으로 2013년에 와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안양Y의 경우 옥상 태양광발전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수원Y는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부천Y는 햇빛 발전소 증설에 노력하며 시민 에너지햇빛발전소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조례 제정 운동도 함께 전개하게 된다.

## 세계의 여성과 함께 8월 8일

잔혹한 성폭행 · 강간 · 살해 등 여성 범죄  
유엔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  
북한 아동 · 여성 '인권보호 결의문' 도

YWCA는 여성과 소녀에게 가해지는 폭력 현실을 규탄하며, 어느 때보다도 VAW 운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Y는 여성의 권한 확장 운동과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여성'(Women, Creating a Safe World)운동을 2011년 YWCA 세계 총회 슬로건으로 세웠다. 세계Y는 '북한어린이와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지원 노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탈북난민 여성과 어린이들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Y는 VAW 운동 외에도, 젊은 여성 지도력 개발운동, 기후변화 환경운동, 모자보건개선 운동, 팔레스타인 평화운동, 탈핵운동 등의 범지구적 운동의 확산을 위해 세계Y 회원국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다.


## <가 만나는 세상> 글로벌 나눔과 평화를 심는 서울Y 해외봉사활동

서울Y는 나눔과 평화를 심는 해외 봉사활동을 태국, 미얀마, 탄자니아, 캄보디아 4개국에서 펼치고 있다. 태국 미얀마 국경 난민여성을 위한 봉사활동 '피스 인 아시아'는 해마다 7월 초 인권과 평화, 여성이슈에 관련된 국제NGO를 탐방하고, 다양한 교육과 봉사를 펼친다. 탄자니아 봉사활동은 학교를 방문하여 컴퓨터 교육을 하고 미얀마 교육봉사활동은 어린이를 위해서 예체능, 여성을 위해서 수공예품 만들기 등을 한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은 고아원을 방문하여, 지역의 어린이 · 주민과 함께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8월 15일

통일 · 평화 단어 언급조차 어려웠던 시기  
생활관습 · 체제 등 북한 바로알기 캠페인  
남북 인간띠 · 분유 보내기 운동으로 확산

한국Y 평화운동은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2년부터 '사랑과 평화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를 주제로 평화운동을 전개하며 1985년 '평화를 위한 정오기도회' 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였다. 1986년부터는 평화통일운동을 중점 사업으로 정하여 '북한바로알기운동' 등을 실시하였다. 96년부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분유보내기 운동' 을 전국 운동으로 펼쳐나갔으며, 지금까지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어린이와 함께' 로 이어져 진행되고 있다. 1994년 중국 연길시에서 열린 제1차 한민족 여성대회는 '미래의 세계와 여성문화' 의 주제로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48명이 함께 하였으며, 1996년 2차 뉴욕 대회로 이어졌다. 이 당시 논의를 통해 한국Y 자매단체인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가 탄생하게 되었다.

8·15 광복은 일제의 압제 하에 있던 한반도에 출애굽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민족이 하나 되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약속의 땅은 다가오지 않은 채 아직도 분열과 갈등, 전쟁의 공포라는 거친 광야생활 속에 머물러 있다. 남북이 서로를 향한 대결구도를 거두고, 진실과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협력으로 상호 소통하는 온전한 약속의 땅 한반도의 모습을 염원한다. 또 2013년이 정전협정 60주년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원년의 역사로 기억되길 기도한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늘어나기를 소망한다. 

# ‘아름다운 땅 독도, 더 말이 필요한가요?’

\* 북부, 중부, 동부, 서부지역 Y-틴 지역별 회원대회가 7월, 8월 중에 있었다.  
Y-틴 지역별 회원대회는 연초에 정한 중점 운동 ‘독도 알리기’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목적을 점검하는 자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갖고 독도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펼쳤다.

북부



중부



동부



서부



우리는 춘천Y,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댄스동아리 픽스업이다. 우리 픽스업은 이번 회원대회에서 “독도는 우리땅” 노래에 맞추어 안무 연습영상을 미리 제작하고 회원대회 당일, 플래시몹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120명의 북부지역 Y-틴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 훈련을 하였다. 중앙임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다음은 미션 포스트. 독도에 대하여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로 해석해보는 시간이었다.

정의 포스트에서는 독도의 역사를 배우고, 생명 포스트에서는 독도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가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찾아보고 써보았다. 평화 포스트에서는 독도의 문제를 평화적인 마음으로 해석해보았다. 이제 본격적인 플래시몹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우리 북부지역 Y-틴이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을 하는 것 자체로 흥분되었다. 독도의 평화를 외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Y-틴 회원들 모두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웠다.

(김동구 춘천Y, 성수고 3학년)

중부 Y-틴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알리기 위한 독도 플래시몹을 촬영하고 평화 콘서트를 열었다. 개회예배로 시작하면서, 이번 플래시몹과 평화 콘서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독도가 기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평화콘서트에서는 대전Y 댄스 동아리, 세종Y 오투 밴드가 멋지게 공연하였다. 콘서트 마지막에 독도를 지키자는 중부 Y 선서는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취침시간 전까지 재밌게 놀고 많은 것을 소통할 수 있었다.

이번 독도 캠프를 계기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독도가 우리 한국의 땅임을 분명히 알기를 바라고, 나 역시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비록 일본이 영토리 근거를 들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막말들을 뱉어 낸다고 해도 나는 논리적인 근거로 평화적으로 맞설 것이다.

(이인규 세종Y, 한솔고 1학년)

회원대회에 도착한 첫날, 많은 친구들의 모습이 ‘확’ 들어왔다. ‘아니, 이렇게나 친구들이 많다니!’ 나는 별로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을 보자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도수 높은 내 걱정은 단 하루도 되지 않아 깨졌다! 지역도 다르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지만 또래라는 공감대를 통해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 것처럼 잘 어울릴 수 있었다. 그리고 강의나 공동체 훈련, 울산 탐방까지 각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었다.

독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플래시몹을 배우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사실을 바로잡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춤을 추니 비록 몸치일지라도 너무 신나고 뿌듯했다. ‘지역을 떠나 각 지역 청소년들과 적극적으로 사귀고 친구가 되자’ 라는 생활수칙이 있었는데, 캠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두려웠던 이 말이 2박3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친구들이!

(김충명 통영Y, 통영여고 2학년)

이번 회원대회는 타 지역 대표 Y-틴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청소년 회원대회를 만들 수 있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준비한 독도 플래시몹, 하얀 천위에 그린 독도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다른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랑스럽게 펼쳐내던 순간! 우리가 해냈다는 생각에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우리가 힘을 모아 만들어 낸 평화의 다리 위를 건너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며 ‘Y-틴이 만들어가야 할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회원대회 내내 우리 Y-틴 회원들은 다른 청소년보다 독도에 대한 깊은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즐거웠다. 하반기에도 회원대회를 기억하며 Y-틴만이 할 수 있는 독도 평화운동을 찾아볼 생각이다. 독도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 회원대회! 잊지 못할 추억을 새록새록 간직한 채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서부지역 Y-틴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박지현 광주Y, 송원여고 2학년)

# WCC 에큐메니칼 운동과 여성

글 | 배현주 (부산 장신대 교수)

제10차 WCC 부산총회가 개최되는 올해 2013년은 WCC 여성국 60주년을 기념하는 해다. WCC 여성국은 남녀 파트너십과 성정의가 실현된 평등한 공동체 형성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전 인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일해 왔다. 지난 60여 년 간 WCC의 여성 관련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신과 원칙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성서적 인간학(창 1:27),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하나인 공동체라는 성서적 교회론이다.

WCC 총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이미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국제적 여성운동인 YWCA나 세계기도일운동(World Day of Prayer)과 같은 세계 에큐메니칼 여성운동을 통해서 리더십과 조직력을 강화시켜 놓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여성들은 제1차 WCC 암스텔담 총회 전에 네덜란드 바른(Baarn)에서 여성사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된 것이다. 총회가 거듭될수록 여성이 성차별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계급·계층 차별 등 복합적 차별의 탓에 빠져 있다는 인식이 심화되었고, 교회와 사회에서 다른 차별들과 함께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정을 이룩하는 일, 그리고 남녀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건설하는 일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었다.

1987년 WCC 중앙위원회에서는 'UN 여성 10년' (1976-1985)의 선구적 모델에 응답하기 위해서, 또한 자체적 연구 과제였던 '여성과의 교회 공동체' 연구에 대한 후

속 실천으로서 여성과의 연대를 입증하기 위한 특별한 십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듬해인 1988년 '여성과의 연대하는 교회 에큐메니칼 10년' (Ecumenical Decade of the Churches in Solidarity with Women : 1988-1998)이 진행되었고, 이 운동의 긍정적 경험에 기초해서 후속 프로그램인 '폭력 극복 10년' (Decade of Overcoming Violence: 2001-2010)이 출범하였다.

WCC에 있어서 여성부문은 그 출범에서부터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여성들이 각급 공동체에 만연해있는 억압적 구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영성적 신학적 훈련을 제공하고,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강화하며,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과 투쟁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헌신을 가시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교회가 교리, 예전, 신학, 조직에 침투해있는 반여성적이고 성차별적인 dogma와 실천들을 반성하고 인종차별, 계급차별과 함께 성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며 여성과의 연대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고자 노력해 왔다.

## 제10차 WCC 부산총회와 여성

### 1) 여성사전대회

총회 직전 이틀간 개최되는 여성사전대회는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WCC 총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부산총회 및 그 이후의 에큐메니칼 운동 전반에 있어서 젠더의 관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의식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번 사전대회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등 성에 기초한 폭력 전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사례들을 공



유하고, 성정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 콘텐츠, 그리고 실행 계획 전반을 포괄하는 성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여성사전대회는 부산총회의 주제인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기도문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이 때 중심이 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HIV와 성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성적 존재이자 출산을 담지하는 존재인 여성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의 '정의' 관점에 성정의가 포함되고 있는가? 교회는 '평화'를 건설하고자 할 때, 교회와 사회 내에서 젠더에 기초한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올해 여성사전대회에 특별한 것은 WCC 총회 역사상 최초로 '남성사전대회'를 여성사전대회의 일부로 함께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다. 남성들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성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기도를 바치고 있다. 여성에 대하여 위계질서적, 권위주의적, 온정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가부장적 남성성이 아니라, 여성과의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룩할 수 있는 긍정적 남성성(positive masculinities)을 구현하지 않고는 성서적인 간론과 교회론의 정신을 성취할 수가 없다.

### 2) 에큐메니칼 대화: 여성과 남성의 교회공동체: 상호 인정과 변형적 정의


부산총회는 21개의 주제별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서 다음 총회까지 세계 교회와 세계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 등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심도 깊은 권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총회 기간 중 나흘간 90분의 토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에큐메니칼 대화 중 한 분과가 '여성과의 남성의 교회공동체: 상호 인정과 변형적 정의'라는 모임이다. 이 에큐메니칼 대화는 여성사전대회의 연속선상에서, 지난 60년간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적극적 실천과 함께 과거 에큐메니칼 운동기 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과오를 상호 인정하고, 과거의 긍정적 유산을 전수하며 실수를 극복해서 변형적 정의를 추구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회의는 교회의 생활을 구성하는 친교(koinonia), 증언(martyria), 예전(liturgy), 교육(didache), 섬김(diakonia) 등 제반 영역에서 여성의 관점과 경험이 포함되는 방식을 심화하고자 한다. 이 에큐메니칼 대화의 협력 파트너들은

YWCA를 비롯한 세계기독교여성운동 단체들, 특별히 성정의 추구를 기독교 신앙의 실천에 중요과제로 삼고 있는 WCC 회원교단들, 여성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는 UN산하 기구들 등이다.

### 3) 마당 워크숍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한글 '마당'이 영어로 음역되어서 그대로 사용되는데, 나흘간 90분에 걸쳐 진행된다. 여성문제를 주제로 한 마당 워크숍에는 우간다 기독교연합회의 '내전 종식: 여성들은 어디 있는가?', 동구유럽 대화포럼의 '정의로운 세계를 위하여: 성착취에 대한 저항', 핀란드교회원조의 '평화 창출자로서의 여성 종교 지도자들', 영국 성공회의 '젠더와 종교간 대화', 한국 YWCA의 '여성폭력에 대한 교회의 응답', 한국여성이주노동자 인권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아시아에서의 이주의 여성화', 한국 정의·평화·생명 여성협의회의 '한국여성과의 정의·평화·생명 운동', 한국 정신대대책협의회 '군대 성노예 희생자들에 대한 존엄성과 정의의 회복,' 등이 있다.

### 4) 마당 전시회

전시회장에서 상설될 91개의 마당 전시회에서는 세계 YWCA에서 주관하는 '세계 YWCA의 선교와 사업' 외에 주최국인 한국의 기독교여성단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한국여성학자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와 신학을 논하는 한국여성들,'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정신대 희생자들을 위한 존엄성과 정의의 회복,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전시 폭력,' 한국여성이주노동자 인권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아시아에서의 이주의 여성화 현상, 한국에서의 이주 여성의 인권 실태, 교회의 책임,' 한국장로교여성전국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 한국 장로교 여성의 열정' 등이 있다. 한편 마당 전시회는 총회 기간 여성쉼터 공간(A Women's Space)을 상설하여 총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성정의(Gender Justice)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방문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휴식과 대화와 연대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연합회 소식

## 8.15기념 한반도평화통일 염원 기도회 및 특강



연합회는 8월 13일 오전 11시 연합회 강당에서 8·15 기념 한반도평화통일 염원 기도회 및 특강을 가졌다. 1부 기도회는 '하나의 여럿이다'는 주제로 운명선 목사·배영자 위원(연합회 평화나눔팀 위원)의 말씀나눔이 있었다. 2부에서는 '바로 보는 통일, 바로 보살피는 평화'를 주제로 한완상(전 통일부 총리) 박사의 특강이 있었다. 회원Y 및 연합회 이사, 위원, 실무자 80여명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였다.

## 한·일Y 공동성명서 세계YWCA에 전달

연합회는 7월 15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위안부 망언 관련한 한·일Y 공동성명서를 세계YWCA에 전달하였다. 일본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오루는 "전쟁 중 위안부는 필요했다"라는 망언을 하였다. 인권침해, 전쟁범죄 정당화 시도 망언에 대해 한국YWCA는 위안부망언 발언 철회 및 사죄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일본YWCA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영문, 일문으로 번역된 성명서는 세계YWCA에 전달, 세계YWCA 홈페이지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108개 회원국YWCA에 전달되었다(성명서 P. 15).

## 키다리학교 연대 캠프



고양·서울·안양Y가 함께하는 키다리학교 연대 캠프가 8월 2일부터 3일까지 고양Y, 파주 헤이리에서 있었다. 공동체 활동, 리더십 미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고양·서울·안양 키다리 및 운영진, 연합회 실행위원 및 실무자 총 37명이 참가하였다.

## Y-틴 지역별 회원대회

2013년도 Y-틴 지역별 회원대회가 7, 8월 중 열렸다. 서부 지역 회원대회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여수순교교회에서 열렸으며 총 127명이 참가하였다. 중부지역 회원대회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으며 총 73명이 참가하였다. 동부지역은 7월 29일 울산학생교육원에서 개최하였고 총 87명이 참가하였다. 북부지역은 8월 17일 서울YWCA에서 열었으며 총 100명이 참가하였다. Y-틴 지역별 회원대회에서는 '독도 지키기'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자세한 내용 P. 28~).

## 길 위의 평화학교 : 한국Y·퀸즈Y·연변 여성들이 함께하는 백두산 평화기행

연합회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길 위의 평화학교 : 한국Y·퀸즈Y·연변 여성들이 함께하는 백두산 평화기행'을 하였다. 연변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제3차 여성이 만드는 미래와 평화, 평화기행, 연길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Y(지역별 대표 23명, 연합회 13명),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15명, 연대과학기술대학교 15명, 뉴욕퀸즈Y 2명, 국민일보 기자 1명 총 70명이 참가하였다(자세한 내용 P. 6~).

## 제15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제15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탈핵과 에너지 정의'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협의회는 기초강연, 현장탐방, 국가별 문화 교류, 국가보고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한국Y 참가자 18명, 일본Y 참가자 18명, 연합회 실무자 및 자원지도자 10명 총 50명이 참가하였다(자세한 내용 p.10~).

## YWCA학교 1차 정책협의회



연합회는 8월 27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YWCA학교 1차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현재 한국교육 현실을 통감하며 YWCA 교육운동의 의미와 가치, 학교설립 계획 공유, 향후 사업 방향과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YWCA학교 TFT 위원, 연합회 임원, 5부 지역위원장, Y아카데미 지역센터 운영팀장, 지역센터 운영 회원Y 회장·사무총장, Y키다리학교 운영 회원Y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2013 YWCA복지관 직원연수

2013 YWCA복지관 직원연수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이기풍선교기념관에서 있었다. YWCA와 복지운동 특강, 기관별 소개, 복지관장연구모임, 제주 탐방을 하였다. YWCA복지관 및 센터 직원, 복지사업단 실무자 등 총 81명이 참석하였다.

## 대학·청년Y 2차 활동모임

대학·청년Y 2차 활동모임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순천에서 있었다. 순천YWCA 대학·청년Y가 기획·운영팀으로 활동하였다. '우리어디가?'라는 주제로 대학·청년Y와 사회 만나기, 지역별 대학·청년Y 연대와 교류, 활동계획 세우기를 하였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도 탐방하였다. 전국 대학·청년Y 회원 40명, 연합회 위원 및 실무자 총 50명이 참석하였다.



## 제3차 신입사무총장 연수

제3차 신입사무총장 연수가 8월 30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사무총장 역할 이해'를 주제로 Y운영·운동 이해, 회원Y 당면과제 찾기, 해결방안모색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전 Y 유덕순 사무총장, 논산 Y 박수정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 2013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2013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가 8월 26일 KBS스포츠월드 체육관에서 열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는 '소비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주제로 단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Y, 연합회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동정

- 박수정 논산Y 사무총장 취임 (2013. 9. 1)
-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 도서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 완역 출간 (2013. 6. 21)
- 조영미 연합회 부장 복직 (2013. 9. 1)
- 김지혜 연합회 간사 사직 (2013. 8. 31)

# 회원 YWCA 소식

## 북부

서울YWCA

박서영 간사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난민여성을 위한 봉사활동



서울Y는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난민여성을 위한 봉사활동 '피스 인 아시아'를 지난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 17명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여성들과 함께 교류하고 봉사활동을 하였다.

탄자니아 IT교육 봉사활동

서울Y는 탄자니아 IT교육 봉사활동을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진행했다. IT 특화 봉사활동팀인 24명의 대학생 단원들은 IT교육뿐만 아니라 유·초등·중등 교육, 지역 환경정화를 위한 노력봉사, 지역주민 500여명과 함께 한 아나바다 바자와 마을축제 등 문화교류도 했다.

인천YWCA

이한나 간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여



인천Y 청소년들이 7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참여하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견학하고 돌아왔다. 8월 13일에는 강화를 찾아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에 맞서 나라를 지킨 여러 유적지를 둘러보며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24일은 파주통일견학을, 9월 7일은 연평도 안보 견학을 다녀온다. 청소년들이 "Zoom in 대한민국"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강릉YWCA

김미란 간사

Y-틴 봉사활동

강릉Y Y-틴은 방학을 맞아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8월 5일부터 6일까지 해나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색종이접기와 풍선아트를 하였다. 8월 6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에는 동인병원을 방문하여 레크레이션, 색종이접기, 그림그리기, 풍선아트 등을 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강릉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8월 6일 여름 휴가철 관광지역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경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였다. 또한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도 하였다.

동해YWCA

김정은 간사

동해 생명꿈나무 돌봄센터

동해Y는 6월 24일 회관 2층에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열고 7월 1일부터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만 1세부터 만 5세의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육, 유아독서코칭시스템, 악기지도 등을 하며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속초YWCA

백수미 간사

Y-틴 활동 시작



속초Y는 Y-틴 활동을 시작한다. 속초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Y-틴에 가입하였다. 8월 6일 Y-틴 15명과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YWCA 운동 소개, EM 흙공 만들기 하였다. 앞으로 속초Y Y-틴은 환경운동(EM활동)과 평화운동(북한바로알기), 소비자운동(청소년경제교육, 소비자교육)을 할 것이다.

원주YWCA

김병남 간사

유용한 미생물 EM 교육

원주Y는 7월 25일 EM아카데미를 열었다. 생활 속 EM 사용 방법, EM을 써야하는 이유, EM 세제와 비누만들기 실습을 하였다. 총 14명이 수료하였다.

청소년 환경체험 캠프

원주Y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원주 치악산 자연학습원에서 청소년 에코스쿨 '애들아 숲에서 놀자'를 진행하였다. 숲에서 몸으로 느끼는 생태체험을 하였다. 자연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춘천YWCA

진소정 간사

어린이 환경사랑 학교



춘천Y는 8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4주간 '어린이환경사랑학교'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40명의 학생들이 EM흙공 만들기, 가평 산내들마을 체험, 여주 곤충박물관 견학,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견학을 하며 보고, 듣고, 만지기를 하며 환경사랑 교육을 하였다.

## 경기

남양주YWCA

이종은 간사

싱크머니 데이

남양주Y는 7월 12일 송촌초등학교 강당에서 싱크머니데이를 진행하였다.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한 이날 버룩시장을 열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물건은 학생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후 판매금액은 기부하도록 하였다. 돈의 소중함과 꼭 필요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구매하는 방법도 배우게 하였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민들레 홀씨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부천Y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부천Y 회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동시따먹기, 신문(NIE)속 세상읽기, 동화요리, 토피어리 수업 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만한 주제로 재미있게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부천 시민통일문화제**



부천Y는 8월 15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부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자!' 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문화제에 참석하였다. 정전협정 60주년인 올해 부천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이번 통일문화제에서 부천Y는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 캠페인과 '북한어린이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적기를 청소년들과 함께 전개하였다.

**성남YWCA** 황정아 간사

**애들이 함께 밥먹자**



성남Y는 7월 16일 은행중학교에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성남Y 이사, 회원, 은행중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열치주먹밥을 직접 만들어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 모금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기부와 나눔을 통해 북한의 또래친구들에게도 밥을 나눌 수 있는 캠페인으로 전개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캠페인**

성남Y는 7월 24일 야탑역 광장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캠페인을 하였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캠페인이었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수원·교토YWCA 한·일 청소년 국제 자원 봉사단**



수원Y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교토Y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안에너지와 탈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원전 현황과 문제점 등을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토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봉사단은 액션플랜 발표를 통해 실천방안을 나누었으며, 홈스테이와 대안에너지 사용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일본문화를 경험했다. 앞으로 수원Y는 교토Y와 적극적으로 청소년 교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친친 와이파이존 학교공간 바꾸기**

안산Y는 '포스코와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본오중학교의 학교 공간 바꾸기 사업을 완료하였다. 학교 내의 어둡고 후미진 공간이었던 옥상 연결 계단과 복도를 예쁜 북카페로 조성하였다. 공간 바꾸기는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포스코 봉사단, 본오중학생들과 함께 하였다.



**어린이 기후행동리더 양성캠프**

안산Y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환경지킴이로 키우고자 어린이 기후행동리더 양성캠프를 하였다.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대체에너지와 기후환경보호를 주제로 캠프를 실시하였다. 태양열 조리기, 태양광 자동차, 에너지 북아트 만들기, 자전거발전기 체험 및 별자리 관찰을 하며 자연과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안양YWCA** 김희정 간사

**유용한 미생물 EM데이 캠페인**

안양Y는 7월 25일 3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악취구역에 EM(Effective Microorganism)발효액으로 집중살포하고 EM발효액을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무료배부하였다. (주)실드텍과 수질보전기금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실드텍에서 EM탱크를 부착한 1톤 차량과 고압세척기로 EM발효액을 분사하였다.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안양Y는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8월 1일과 8월 2일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과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8

월 7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한 후, 안양시청에서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발표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6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의정부Y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하계청소년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번 자원봉사학교는 우리 영해와 독도에 대한 알리미 캠페인으로 구성하였다. 첫날에는 독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시작으로 둘째날부터는 독도알리미퀴즈, 독도가두캠페인, UCC홍보 제작 등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에는 의정부역에서 '독도는 우리 땅' 번개모임(플래시몹)을 통해 알리미 역할을 수행하였다. 3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다.

**중부**

**대전YWCA** 강은혜 부장

**찾아가는 재활용 아카데미 전시 및 시연회**



대전Y는 7월 11일 꿈나무아파트에서 찾아가는 재활용아카데미

미 전시 및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재활용아카데미는 6월 13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자투리 천을 이용한 핸드폰줄 만들기, 우유곽을 이용한 화분만들기, 폐CD를 이용한 시계만들기 등 다양한 재활용 실습과 이론교육을 하였다. 이날 시연회는 재활용을 홍보하고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

대전Y는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샤르하드 은혜교회에서 해외 자원봉사를 진행하였다. 14명의 참가자들은 한국어, 영어, 예체능 과목의 교육봉사과 화장실 공사, 대문페인트 수리, 위생소독 작업등의 노력봉사 및 장애 독거노인가정 방문, 후원물품 전달 등을 하였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꿈꾸는 청소년학교**



청주Y는 7월 25일, 8월 1일에 2회기에 걸쳐 '꿈꾸는 청소년 학교'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생계의 직업이 아닌 꿈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1회기는 고려대(세종캠퍼스)에 방문하여 강수돌 교수의 '청소년의 꿈의 길과 생계의 길'에 대한 강의를 듣고, 2회기는 한국 잡(JOB)월드에서 방문하여 청소년의 적성에 대해 알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총 16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2013 이사 여름연수**

청주Y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남 신안군 증도로 이사 여름 연수를 다녀왔다. 총 29명이 참석하였으며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등을 돌아보았다. 이번 이사여름 연수를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이사의 역할과 YWCA공동체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논산YWCA**

**김화선 간사**

**Y-틴 환경 교육 '우리는 에코 프론티어 시즌2'**



논산Y는 7월 22일부터 '우리는 에코 프론티어 시즌2'를 시작하였다. 에너지환경, 탈핵과 먹을거리 등의 이론교육을 5회기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과 체험,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구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Y-틴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세종YWCA**

**홍진영 간사**

**Y-틴 평화캠프**



세종Y Y-틴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영농조합법인에서 Y-틴 평화캠프를 열었다. DMZ 견학, 정치석 목사 초청 강연, 소이산 평화순례, 정종근 시인에게 듣는 철원이야기, 새터민 초청 강연 등 평화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생각하며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종Y Y-틴은 월 1회 청소년 평화운동가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공부하였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여성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정치참여 확대 특강 종강식**  
천안Y는 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총 12회차에 걸쳐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정치참여 확대 특강을 하였다. 충청남도 내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1회차부터 9회차까지는 SNS를 활용한 정치참여방법과 나의 꿈 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9월에는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회원환영대회**



천안Y는 8월 24일 하늘샘교회에서 회원환영대회를 하였다. 또한 천안Y 회원들과 가족들, 이사, 직원 150여명이 하나가 되어 4대약근절에 대한 선서를 하였다. 이어 민속놀이와 단체 게임, 회원증모 대원 시상식이 있었다.

**서부**

**광주YWCA**

**김해정 간사**

**청소년 여름 캠프**



광주Y는 8월 8일부터 9일까지 곡성청소년야영장에서 청소년 여름캠프를 열었다. 섬진강 래프팅, 유용한 미생물 EM활용법,

천연비누 만들기 등을 통해 다양한 수질정화활동을 체험하였다. 체험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의 실태와 앞으로의 실천방안을 담은 환경신문을 제작하여 환경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45명이 참여하였다.

**남원YWCA**

**박경은 간사**

**싱크머니 체험학습**



남원Y는 8월 14일 '신나는 공부방 싱크머니 체험학습'에 참여하였다. 전통재래시장 탐방으로 마트에 익숙한 아이들이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보는 연습도 해보고, 시장상인들도 만날 수 있었다.

**전주YWCA**

**김은진 부장**

**Y-틴 독도 지키기 활동**



전주Y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며 Y-틴 회원들이 풍남광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독도야 우리 놀자'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독도야 우리 놀자'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 전공 학생들과 Y-틴 학생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로 '독도는 우리땅'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펼쳤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며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축제가 되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도움 서비스

전주Y는 8월 6일 전주평화중학교 검정고시장을 찾아 고등학교 입학,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른 3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진로, 사회적 및 자립,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에 대해 안내하였고, 시험이 끝난 청소년을 격려했다.

익산YWCA

정아영 간사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한 씩크머니 캠프

익산Y는 8월 2일 샘솟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씩크머니 캠프를 개최했다. 김혁중 목사의 '나누는 기쁨'이라는 설교 말씀에 이어서 이영미 금융전문가(우리신협 상무)의 '경제이야기' 강연, 정연화 회원의 신기한 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어 골든벨 퀴즈와 장기자랑, 조별발표가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준비한 물품과 익산Y가 준비한 물품으로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아이들이 직접 경제를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서강, 샘솟는, 신황등 지역아동센터 아동 70여명과 센터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하였다.

광양YWCA

추효인 간사

제18회 여성주간 행사 참여

광양Y는 7월 9일 제18회 여성주간행사에 참여하였다. 광양Y는 부대행사로 EM만들기, 여성상담센터,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 및 진행하였다. EM만들기 체험 부스는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목포YWCA

곽수현 부장

찾아가는 다문화 아동 한글교육 및 보육지원사업



목포Y 한글배움터는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다문화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포Y 보육교

사들이 주 3회 신안군 임자면, 흑산도에 직접 찾아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주여성 언어소통의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순천YWCA

신현아 간사

제18회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캠프



순천Y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애들아 밥먹자 사업의 일환으로 제18회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캠프를 진행하였다. 중,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31명과 대학생 지도자 11명이 2박 3일간 낙안 금산마을에서 고추 수확 및 밭 김매기 등 농촌 일손을 돕고 조별활동으로 공동체의식을 키웠다.

제주YWCA

장진우 간사

제주 청소년정책 토론회 개최



제주Y는 7월 23일 '2013 제주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박옥식 사무총장(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기조강연, 유성희 사무총장(한국YWCA연합회) 외 전문가 분과 토론이 있었다. 제주지역 청소년 전문가와 청소년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평화안보 파주 기행

제주Y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파주시에 평화안보 기행을 다녀왔다. 제주Y 이사, 실무자, 제주Y 클럽대표 등 30여명이 함께 한 이번 평화안보기행은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판문점 등을 돌아보며 평화의식을 높이고 분단의 아픔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성인지'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서귀포Y는 8월 8일 동홍동 주민센터에서 제주지역 성인지 의식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하였다. 동홍동주민참여지역회의 위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이경하(성인지예산컨설턴트)강사의 강의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성인지적 이해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이번 교육컨설팅은 제주지역 4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세미나 개최를 통해 성인지 의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중앙 꿈쟁이 작은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중앙 꿈쟁이 작은도서관은 7월 27일 개관 1주년 기념식과 책문화 행사를 열었다. 학부모와 학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도서관 동아리 '꿈쟁이동화맘'의 '방귀쟁이머느리' 연극이 식전행사로 진행되었고, 이신선 관장의 인사말, 오성욱 중앙도서관장의 축사, 도서관 운영 1년의 활동영상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책문화행사에는 '이경주' 작가와의 만남, BOOK(북)적BOOK(북) 리사이클마당, 리본아트, 신화다트 등 다양한 체험마당이 운영되었다.

동부

대구YWCA

김세형 차장

지역아동센터 소비자 교육

대구Y는 7월부터 8월까지 진행지역아동센터 외 9개 지역아동센터 30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다. 마술과 함께 하는 소비자교육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즐거움을 더 했으며, 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착한소비와 기부문화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지역 Y아카데미 중견활동가 네트워크

Y아카데미 동부지역센터 대구Y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YWCA 3년 이상 실무활동가 15명과 함께 중견활동가 네트워크를 진행하였다. '나'를 찾고, '우리'를 이해하며, 'YWCA' 비전과 운동성을 함께 공유함으로 자신의 성장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YWCA

박지영 간사

부산Y 창립67주년 및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식



부산Y는 7월 5일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부산Y 창립 67주년 및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예배와 축하식을 하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또한 이날 장학금 수여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더하였다.

부산시민 절전 캠페인

부산Y는 7월 24일 서면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부산시민 절전 캠페인'을 하였다. 여름철 절전을 위한 캠페인을 하며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이날 에너지 절약 기념품으로 부채를 증정하였다.

울산YWCA

김선양 팀장

환경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

울산Y는 건강한 가정과 울산, 그리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그린맘' 환경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린맘' 교육은 울산 지역의 현 생태계 모습과 기후변화 동향, 재활용 방법과 친환경에너지 등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총 10강 20시간으로 진행하였다. 7월 25일 수료식에는 총 14명이 수료하여 앞으로 환경교육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포항YWCA 황혜민 간사

친친 공간바꾸기



포항Y는 8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대도중학교에서 친친 공간 바꾸기를 진행하였다. 대도중학교 외벽과 실내 벽면을 바꾸는 작업을 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교실(유물복원체험, 초코아트, 텃밭가꾸기, 댄스교실, 영화관람), 캠프, 견학(성문화센터, 마산기상대, 시티투어), 집단상담, 다문화이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울자람 방학교실은 5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울자람 교실에 참여하였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보람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대학Y 운동회

마산Y 대학Y(터울거리) 회원들의 운동회가 8월 10일 회관 강당에서 있었다. 친목 도모와 멤버십 강화를 위한 이번 운동회에서는 줄다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을 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해YWCA 배정숙 실장

청소년 환경리더양성과정 개강

김해Y는 8월 5일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자연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의 흐름과 그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문제, 절약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9월 첫째주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으로 본 프로그램은 마무리 된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다듬이소리 극단' 창단



양산Y는 7월초 '다듬이소리 극단'을 창단했다. 동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고자 창단된 다듬이소리극단은 30~60대의 주부들이 모여 사랑하는 아이, 손자들에게 실감나는 동화를 들려주기 위해 시작했다가 잠재되어 있는 끼를 발견하게 되면서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다듬이소리극단은 양산 최초의 여성극단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어린이집, 노인센터, 희망학교 등을 방문하여 동화구연활동을 한다. 또한 동극, 상항극, 역할극, 연극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마산YWCA 이애라 부장

꿈이 영그는 울자람 방학교실

마산Y는 창원시 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꿈이 영그는 울자람 방학교실'을 진행하였다.

레프트 비하인드 12: 영광의 재림

팀 라헤이, 제리 켄킨스 지음 / 원영희, 김고명 역 / 홍성사 / 2013년 6월 21일 출간

지구 최후의 날을 소재로 한 영적 스릴러 『레프트 비하인드』 제12권 《영광의 재림》. 예언서 연구에 탁월한 팀 라헤이의 선견자적 목시록 해석과 전문 작가 제리 켄킨스의 밀도 있는 글쓰기가 결합하여 탄생한 작품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공포로 전율한다. 지구는 혼란과 무질서 상태에 빠져들고, 이보다 더한 어둠의 날이 남겨진 사람들 앞에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하는데... 종말을 앞둔 지구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며 겪게 되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칠 때까지

니라스 윌터스토프 지음 / 홍병룡 옮김 / IVP / 2007년 6월 20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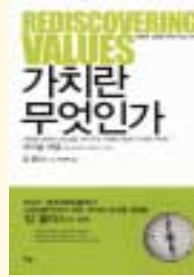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윌터스토프가 불의의 시대에 던지는 깨우침. 이 책은 풍요로운 현대가 안고 있는 불의와 빈곤의 비극을 검토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촉구하는 고전이다.



가치란 무엇인가

짐 윌리스 지음 / 박세혁 옮김 / IVP / 2011년 4월 15일 출간

국제적인 비평가 짐 윌리스가 대불황의 근본 원인이 제어되지 않은 탐욕과 도덕의 붕괴라는 것을 쉬운 언어로 설명한 책이다. 경제 이론, 기업의 현실, 문화 분석, 종교적 가치를 한데 엮어 지금의 경제 위기와 그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존 F. 캐버너 지음 / 박세혁 옮김 / IVP / 2011년 5월 20일 출간

이 책은 미국 사회가 소비주의, 곧 물질 숭배주의라는 이상숭배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며, 욕망 충족과 자기중심적인 힘 사용에 익숙해져가는 미국사회에 대한 영적 진단과 징후 분석에 있어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다.



은밀한 세계관

스티브 윌킨스, 마크 샌포드 지음 / 안종희 옮김 / IVP / 2013년 6월 12일 출간

은밀한 세계관들의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운 책이다.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 문화적 관습, 생활양식, 사회적 통념과 제도 같은 것들에 의해 형성된다. 이 책은 기독교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심각하게 도전하는 은밀한 이 세상의 세계관들의 성경을 렌즈로 조명한다.



월간<한국YWCA> 독자 후기를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하여 이곳에 소개된 책을 보내드립니다.

- 독자 후기 보내주실 곳 : ywcapr@hanmail.net (담당 : 정서연 간사)
- 성함, 연락처, 덕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